

환자시세변동이 자본주의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 두 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조건에서 자본주의시장과 세계경제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무역을 잘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8권 369페이지)

환자시세변동이 자본주의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환자시세변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외무역전략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환자시세의 변동은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리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가들의 여러가지 경제활동은 리윤의 크기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환자시세변동이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은 크게 대외경제활동과 국내경제활동의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수 있다.

환자시세변동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외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자시세변동은 자본주의나라 수출입무역에 영향을 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환자시세가 대외무역에 주는 영향은 그것이 수출거래인가 수입거래인가 하는데 따라 서로 다르다. 즉 환자시세는 수출입업자들의 리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출무역과 수입무역을 발전시키거나 저해하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어느 한 나라 화폐의 시세가 오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상품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어느 한 나라에서 환자시세가 올랐다는것은 외화에 비한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높아졌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화를 가지고 내화를 바꾸게 되면 같은 외화를 가지고 환자시세가 오르기 전보다 적은 내화를 받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출업자들이 상품을 수출하여 얻게 되는 리윤이 적어지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손실까지 보게 하므로 그 나라에서 전반적상품수출을 저해하게 된다.

환자시세가 오르면 상품수출은 줄어들지만 상품수입은 늘어난다.

수입업자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을 사들이자면 그 대금을 외화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내화를 주고 외화를 사야 한다. 수입업자가 내화를 주고 외화를 살 때 자기 나라 화폐의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종전과 같은 금액의 외화를 사는데 시세가 오르기 전보다 적은 내화를 쓰게 된다.

이것은 수입업자들이 종전과 같은 량의 상품을 사들여오는데 보다 적은 내화를 쓰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리윤폭이 커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대외시장에서 자기 나라 독점자본가들의 경쟁능력을 높이며 국제수지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흔히 환자시세평가인하시책을 실시할뿐아니라 경쟁대상국의

화폐시세를 높이기 위하여 책동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서유럽나라들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환자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제국주의자들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있으며 날로 격화되는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있으며 《환자전》을 그 수단으로 하나로 리용하고있다.

1980년대 후반기 미국달러시세의 저락과 일본엔시세의 급격한 상승은 특히 일본의 무역경제활동과 경제전반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였다.

뿐만아니라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파국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한 여러차례에 걸치는 양적완화정책은 미달러와 기타 자본주의통화들사이의 시세를 크게 변화시켜 경제무역관계에서 그들사이의 경제적 대립을 심화시켰다.

환자시세변동은 국제자본이동에 영향을 준다.

국제자본이동은 자본이 한 나라(혹은 지역)에서 다른 나라(혹은 지역)로 이동하는것을 말한다. 국제자본이 이동하는 기본원인은 리윤추구와 자본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이다. 자본이동 특히 단기자본이동은 시세변동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다.

해당 나라 환자시세가 저하될 때 통화가치저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자본은 해외로 도피하게 된다. 이밖에 자기 나라 은행에 예금하였던 국제단기자본 혹은 기타 투자들도 화폐가치저하로 인한 손실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다. 일단 시세의 저하가 정지되면 자본의 해외도피가 중지된다.

반대로 해당 나라 환자시세가 상승할 때 자본소유자들은 화폐가치의 상승이 가져오는 수익을 추구하여 이 나라에 자본을 들이밀게 된다. 일단 시세상승이 중단되면 자본류입도 중지되게 된다.

환자시세변동은 해당 나라의 국제준비에 영향을 준다.

금, 외화, 특별인출권과 국제통화기금에 있는 외화준비는 매개 나라 국제준비의 기본내용을 이루며 그가운데서도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자료에 의하면 1980년 이후 국제적으로는 외화준비가 국제준비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외화는 해당 나라 국제준비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지만 발전도상나라에서 외화는 해당 나라 국제준비총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그렇기때문에 국제준비로 리용되는 통화시세의 변화는 해당 나라의 국제준비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즉 국제준비통화의 시세가 오르면 해당 나라의 국제준비의 가치가 커지지만 반대로 국제준비통화의 시세가 떨어지면 해당 나라의 국제준비의 가치는 감소된다.

국제준비통화시세의 저하가 국제준비에 주는 영향은 나라들마다 서로 다르다. 총체적으로 보면 국제준비통화의 환자시세가 저하되면 발전도상나라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발전도상나라 국제준비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훨씬 크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발전도상나라가 국제준비통화의 시세저하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정도는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하여 아주 엄중하다고 할수 있다.

환자시세변동은 비무역수지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려행수입이나 주민송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조건에서 한 나라 환자시세가 저하되면 해당 나라에서 외화의 구매력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것은 훨씬 많은 여행자가 이 나라에 여행하도록 자극하고 여행에 의한 외화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환자시세가 저하되면 주민송금수입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은 외화의 가치가 높아져 비교적 적은 외화송금을 가지고도 가정을 부양할수 있기때문이다.

한 나라 환자시세가 상승하면 여행수입과 주민송금수입에서는 우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환자시세변동은 국제적인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국제통화로 리용되지 않는 작은 나라 화폐의 시세변동이 무역상대국의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수 있지만 주요자본주의나라 화폐시세의 변동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한 자본주의나라 화폐시세의 변동(평가인하)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무역수지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키며 이것은 나라들사이 《무역전》과 《환자전》을 발생시키고 세계적인 경제관계를 악화시킨다.

또한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의 화폐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계산수단, 지불수단, 준비화폐로 리용되기때문에 이 나라들에서의 환자시세변동은 국제금융분야에서의 혼란을 발생시키며 이것은 세계경제발전에 아주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환자시세변동은 다음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의 국내경제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환자시세변동은 국내물가변화에 영향을 준다.

한 나라 화폐의 시세저하는 해당 나라에서 물가가 올라가게 한다. 그 원인은 두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첫째로, 화폐의 시세가 저하되게 되면 자기 나라 화폐로 표시한 수입품가격이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둘째로, 자기 나라 화폐의 시세저하후 상품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상품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국내시장에서 상품공급에서의 긴장성을 조성하여 물가가 상승하게 한다. 이 두 측면에서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국내소비물가를 상승하게 한다.

반대로 자기 나라 시세의 상승은 해당 나라의 물가가 내려가게 하는데 그 원인도 두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로, 시세상승후 자기 나라 화폐로 표시된 수입상품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둘째로, 시세상승후 발생하는 수출감소, 수입증가는 국내시장에서 상품공급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이 두 측면에서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국내소비물가를 저하시킨다.

환자시세변동은 해당 나라의 산업구조와 자원배치에 영향을 준다.

자본주의나라에서 해당 나라 화폐의 시세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수출품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수출이 확대되며 무역부문에서의 리윤률은 기타 다른 부문에서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원은 수출제조업 혹은 수출무역부문으로 흘러들게 되고 경제구조에서 무역수출부문 혹은 수출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된다. 이로부터 해당 나라의 해외에로의 진출이 강화되고 훨씬 많은 상품이 외국상품들과 경쟁하게 된다.

환자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나라 화폐로 표시된 수입상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원래의 수입상품에 대한 부분적수요는 자기 나라의 상품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게 되므로

해당 나라에서 일련의 국내소비상품업종들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당 나라 화폐의 시세저락은 생산을 늘이고 취업률이 높아지게 하며 국제수지균형의 상태도 일정하게 개선되게 하는 등 나라의 경제전반에 일시적이거나 활기증진을 가져다주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당 나라 통화의 환자시세가 오르게 되면 수출무역이 줄어들게 되며 반대로 수입무역이 늘어나면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수출무역이 줄면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조업단축 또는 파산되게 된다. 또한 수입무역이 늘어나면서 값싼 외국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므로 수입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조업단축 또는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많은 기업들이 조업단축 또는 파산되면서 실업자대렬이 늘어나고 나라의 전반적산업을 침체에 빠뜨리며 국제수지균형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환자시세변동은 해당 나라의 국내외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매개 나라의 경제상태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시세변동이 주는 이러한 영향은 어떤 나라에서는 강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약할수 있으며 지어는 전혀 없을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시세변동이 그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주로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판단할수 있다.

첫째로, 해당 나라의 대외무역시장의존도이다. 만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대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외무역액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면 환자시세변동이 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크다고 할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을수 있다.

둘째로, 해당 나라의 상품생산의 다양화정도이다. 만일 어떤 나라의 상품생산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일화되었다면 환자시세변동이 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클수 있다. 반대로 상품생산이 다양화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화되어있는 나라보다 비교적 작을수 있다.

셋째로, 해당 나라와 국제금융시장의 연계정도이다. 만일 한 나라가 국제금융시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와의 연계가 밀접하다면 환자시세변동이 이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다. 반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게 된다.

넷째로, 화폐의 전환성관계이다. 만일 해당 나라 통화가 자유전환되고 국제지불통화로 광범히 리용된다면 환자시세변동이 이 나라의 경제에 주는 영향은 비교적 크고 반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다.

이외에 한 나라 환자규제의 엄격성정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정도 등의 측면에서 환자시세변동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판단할수 있다.